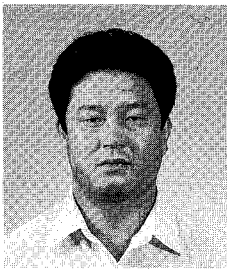


## 계란수급 유통상황 노계도태 물량에 크게 좌우 될듯...



김 선 응  
(봉림농장 대표)

**찬**란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맞이했던 경진년 한해가 양계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저물어갔고, 200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 1월 7일 충청권과 경기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하여, 124호 채란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뒤이어 온 한파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 및 동파로 산란계의 생산성은 급속하게 하락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저하된 생산성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계란가격은 지난 13일 특란이 104원으로 상승되었다. 폭설 피해 농가가 많고, 설경기의 특수와 ND 발생(경남 양산)과 가금티푸스 발생(경기도 이천)으로 인한 산란율 감소 등이 계란가격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경기 악화로 계란 소비는 소비자의 외면 속에서 점차 소비량이 축소하고 있어 계란가격이 생산비선 이상을 유지할런지 의문이다.

질병, 과잉생산 등 생산 전반에 걸친 불안요소가 잠재하고, 유통체제의 미흡과 상인들의 의식부재에 의한 유통의 혼란 등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채란업을 쇠락의 길로 몰아가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는 것을 양계인 누구나 피부로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불안한 생산기반, 유통구조의 미흡 등 양계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계란의 상품성을 높이고 계란의 우수성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계란의 상품성은 실용계 농장에서 계군관리와 방역을 철저히 하다고 이루어질 수 없다. 원천적으로 산란종계가 질병없이 종란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부화장의 청정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건강한 중추육성이 밑받침되어 실용계 농장에서 백신, 외부인차단, 외부차량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상품성 있는 계란이 생산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을 ND, 가금티푸스 등의 양계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산란계 농장의 질

병을 이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국내 산란계의 미래가 보이지 않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축의 질병 파급 효과는 매년 달라지고 있다. 유럽은 지금 광우병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소고기 소비량이 30% 하락하고 독일의 경우는 60% 이상 감소하였다. 유럽의 사태가 비단 양계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외면할 수 있다고 판



단하다면 속단이 아닐까 싶다. 광우병이 주는 교훈은 질병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채란업만이 아닌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축산업은 어느 한 분야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질병관리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올해 실시되는 정부의 양계방역사업으로 산란계 농장이 청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 계란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계란의 상품성이 뛰어나면 계란 할인율도 적어지고 소비자의 구매량도 늘어갈 것이다. 채란업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상품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해는 기능란과 같은 상품성이 좋은 계란이 생산되면서 소비자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된다. 매년 이같은 상품이 개발되어 계란소비가 다양화 된다면 생산기반도 튼튼해질 것이다. 아무리 계란 생산량이 줄어도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에 따라 봄경기의 호·불황이 가려질 것이라 본다. 또한 현재 계란 수급현황은 외적인 요소로 인하여 적정량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볼때 2월 이후 생산 측면에서 유통상황은 금후 노계도태, 수량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에 질병발생과 소비 감소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우리 양계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 양계인 스스로가 방역 요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우수한 계란 생산에 기여한다면 채란업에 종사는 모든 이들이 소비자와 더불어 공생공존의 영광을 누릴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다른 기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양계**